

생소한 온라인 시험 평가 공정성엔 어떻게

장보경 기자 jbg99687@khu.ac.kr

지난 20일 실험·실습수업의 대면 강의가 제한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를 막을 실질적 대안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지난 3일 우리학교 학사지원팀은 “1학기 중간고사 출석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과제물 평가 등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는 과목이 생겨나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e-campus’로 치를 시험을 앞둔 곽재은(국어국문학 2019) 씨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시행하면 공정성이 보장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A 씨 또한 “시험 도중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며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강사를 위해 ‘명예규율’을 만들었다. 명예규율은 ‘교수와 학생이 책임감 있는 학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율이다. 학생은 시험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활동 중 허락되지 않은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수학습 지원센터는 “우리학교는 아직 공식적인 명예규율은 없지만 개별 과목에서 교강사의 선택에 따라 사용된 적 있다”며 “시험 부정을 방지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만든 명예규율을 각 단과대학에 안

내했다”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상황의 타 대학은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교수에게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공문을 안내했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 간 답안 공유를 막기 위해 문제 풀이 시간을 짧게 하고 서술형 문제를 지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교·강사 및 학생 제보 적극 수집, 제보된 교과목에 수강생 전수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뢰할 것”이라 밝혔다. 중앙대학교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더라도 기말고사는 원칙적으로 대면 시험을 치를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위해 평소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기말고사 기간을 1주 연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는 “비대면 강의를 1학기 전체로 확대 실시할지 여부를 5월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일 양캠퍼스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격하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직 코로나 19가 ‘심각’ 단계라 대면 강의 전환에 대한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가온 기말고사도 온라인 시험으로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말고사와 관련해 서울캠 학사지원팀이 내놓은 “6월까지 대면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기말고사 출석 시험도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이 학교 측 입장 전부인 상태다.



그늘진 강의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장되며 중간고사도 강의실에서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대면 강의 전 기숙사 입사 진행, 예방 행동수칙 준수 필요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 20일부터 실험·실습·실기 등 일부 대면 수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국제캠퍼스(국제캠) 기숙사 우정원의 임시 입사가 시작됐다. 임시 입사 대상은 대면 수업 수강 학생, 교내 연구 활동 목적으로 임시 거주가 필요한 학생, 기타 학업 목적으로 임시 주거가 필요한 학생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기숙사 세화원, 삼의원은 사전 입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행복기숙사는 입사 수속일을 연장한 상태다.

국제캠 생활관 유중근 계장은 기숙사 임시 입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 조건으로 학생들의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입사 대상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주거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교내에서 연구 및 학업 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

영해 임시 입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 임시 입사 신청자는 모두 우정원에 거주하게 된다. 유 계장은 “임시 입사를 하게 된 학생이 아직 두 건물(제2기숙사 남자동, 여

자동)로 나뉘어 들어갈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건물로 이루어진 우정원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현재 임시 입사 신청자 수는 약 70명으로 대면 수업 증가에 따라 신청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캠 기숙사(행복기숙사, 세화원, 삼의원)는 계속 입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약 400명, 세화원은 약 120명 정도가 입사했고 삼의원 또한 현재 100여 명 정도 입사를 신청한 상태다. 행복기숙사 측은 “입사 조건에 따라 기준을 두고 있지만 는 않다”며 “실험 실습 문제 등의 여건을 고려해 계속 입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본가가 먼 학생들이 많다”며 “수업이 없더라도 서울에서 부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사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기숙사 측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계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내 코로나19 상황실 및 질병 관리본부 지시에 따라 감염자 거주 층을 폐쇄하고 철저한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학생들의 안전

을 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 학생들을 제2기숙사로 임시 이동 거주 후, 감염 차단 및 관리가 확인되면 재입사 시킬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예방 행동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책임 망각한 기성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탄한다”

김지원 기자 kjk990327@khu.ac.kr

지난 6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한 29개 대학 언론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언회는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이 n번방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선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소비거리로 전락시켰다”며 “이에 서언회는 기성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언회는 “n번방 사건은 대한 민국 사회에 오랜 기간 뿌리내린 여성 성착취를 뚫고인 결과”라며 “국민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동의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 청원은 한국사회 의 끊임없는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기성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이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와 기회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판단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서언회는 가해자의 불 필요한 서사를 보도하는 ‘기성 언론의 가해자 중심 보도’와 유명인 중심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본질을 흐리는 기성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 중심의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보도를 멈추고 진실과 본질을 추구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어야 하기에 언론이 제 빛을 찾는 날까지, 서언회는 그들의 반성과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면안내

줌(Zoom) 보안 문제,

“미흡한 점 있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플랫폼”

» 2면

타자화와 배제로 빚어낸 ‘청년’, 범주에 대한 성찰이 우선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연재 기획

» 3면

제21대 총선, 공약(空約) 아닌 공약(公約) 될까

동대문갑, 용인시을, 수원시무 당선자 공약 해설

» 4면

다음 신문은 5월 18일자로 발행됩니다